



그	런		걸	까	요	.		아	마		당	신	도		기	억	하	고		
있	을		거	에	요	.														
	나	는		기	둥	입	니	다	.		당	신	이		매	번		쫓	그	,
리	고		앉	은		채		편	안	히		등	을		기	대	던		그	
기	둥		말	이	에	요	.		기	억	하	시	나	요	?		저	는		
비	록		모	습	이		이	전	과		달	라	졌	을		지	언	정		당
신	은		기	억	하	고		있	답	니	다	.								
	당	신	은		제	가		있	었	던		건	물	을		짓	는		사	
람	이	었	죠	?		콘	크	리	트	나		벽	돌	,		뭐		그	런	
것	들	을		가	지	고		오	르	락	내	리	락	하	던		당	신	의	

모	습	이		기	억	나	요	.		실		때		제	게		기	대		
아		휴	대	폰	에		저	장	된		가	족	사	진	을		보	던		
모	습	도		기	억	나	요	.		당	신	은		딸	아	이	를		몸	
시		사	랑	했	죠	.		저	도		어	깨	너	머		얼	굴	을		
봤	어	요	.		당	신	을		답	아		눈	이		정	말		예	쁘	
더	라	고	요	.																
		“	며	칠		뒷	면		완	공	식	이	야	.		우	리		가	족
다		같	이		보	자	.		마	침		우	리		하	진	이		두	
살		생	일	이	기	도		하	니	까	..	.”								
	제	가		들	은		마	지	막		당	신	의		말	에	도		그	

아	이	가		있	었	죠	.		그	런		당	신	의		모	습	을	
보	면	서		가	족	이		있	다	면		어	편		느	낌	일	까	,
하	는		생	각	도		해		봤	었	어	요	.		제	가		가	졌
던		거	라	고	는		태	어	나	자	마	자		부	여	받	은	,	
천	장	을		받	치	는		임	무	밖	에		없	었	으	니	까	요	.
	하	지	만		지	금	은		제		임	무	가		그	런		것	이
었	음	에		감	사	하	게		생	각	하	고		있	어	요	.		그
래	서		당	신	과		하	진	이	를		구	할		수		있	었	으
니	까	..	.																
	당	신	은		몰	랐	겠	지	만	,		저	희		기	둥	들		사

이	에	서	는		알	음	알	음		커	지	던		소	문	이		있	었
어	요	.		본	래		서		있	었	던		기	둥	들	이		자	꾸
사	라	진	다	고	요	.													
	“	그	럼		그	쪽		천	장	은		누	가		받	쳐	?	”	
	제	가		물	어	보	자		친	구	는	,							
	“	모	르	지	.		우	리	만	으	로	도		충	분	하	다		생
각	했	겠	지	”															
	라	며		통	명	스	레		대	답	했	죠	.		그	래	야		나
중	에		공	간	을		더		넓	혀	서		돈	을		더		벌	
수		있	다	던	데	,		라	고	도		덧	붙	었	죠	.		소	문

은	진	짜	인	것	같	았	어	요	.	같	수	록	천	장		
받	치	기	가	힘	들	어	졌	거	든	요	.	친	구	들	은	너
무	무	거	운	것	아	니	냐	며	비	명	을	질	러	뎌		
쥬	.	그	래	도	전	버	틸	수	있	었	어	요	.			
왜	냐	면	,	당	신	이	있	었	으	니	까	.				
	시	간	은	흘	러	당	신	이	말	한	완	공	식	날		
이	왔	쥬	.	그	런	데	그	날	은	아	침	부	터	불		
길	했	어	요	.	자	꾸	빠	거	덕	거	리	는	소	리	가	
났	거	든	요	.	평	,	평	하	는	이	상	한	소	음		
도	들	렸	고	요	.	아	마	모	르	셨	을	거	예	요	.	

문	제	있	어	보	일	까	봐	최	종	점	검	을	하	지
못	하	게	했	다	고	했	으	니	까	요	.	또	음	악
리	와	박	수	소	리	에	문	히	기	도	했	고	요	.
그	런	게	점	점	불	안	해	지	던	찰	나	결	국	
일	이	터	졌	어	요	.	황	,	하	는	굉	음	과	함
께	이	때	까	지	들	어	본	적	도	없	는	어	마	어
마	한	무	게	가	저	를	덜	쳤	죠	.	사	람	들	은
비	명	을	지	르	고	,	다	른	친	구	들	은	천	장
짓	놀	려	꺼	여	버	리	고	..	.	제	옆	친	구	도
견	디	질	못	하	고	놓	아	버	렸	죠	.	하	지	만
														전

그	런	수	없	었	어	요	.	하	진	이	를	안	고	달	
려	가	는	당	신	을	봤	거	든	요	.					
	“	빨	리	나	가	요	,	빨	리	나	가	!	”		
전	죽	어	라	소	리	쳤	죠	.	그	런	게	버	티	다	
가	소	방	차	사	이	렌	이	들	리	고	비	명	소	리	가
잡	아	들	때	정	신	을	놓	아	버	렸	어	요	.		
당	신	은	무	사	히	나	갔	겠	죠	.	나	중	에	들	
어	보	니	거	대	한	사	고	였	음	에	도	불	구	하	고
사	망	자	가	나	오	지	않	았	다	고	했	으	니	까	.
당	신	이	살	아	서	나	는	기	뻘	요	.	내	역	할	



은		여	기	까	지	구	나		하	는		생	각	도		들	고	요	.
	저	는		무	너	진		다	른		잔	해	들	과		섞	여		있
어	요	.		이	렇	게		함	께		부	서	지	고		갈	려		조
그	만		조	각	이		되	어	,		기	둥	이		아	니	라		벽
돌	이		되	었	으	면		좋	겠	네	요	.		그	리	고		언	젠
가		당	신	이		배	경	화	면	으	로		해		둔	,		바	닷
가	의		아	담	한		벽	돌	집	이		되	어		당	신	과		다
시		만	나	고		싶	어	요	.		소	원	이		바	닷	가	에	서
사	는		거	라	고		그	러	신	거	,		기	억	한	다	고	요	.
	비	록		지	금	은		바	람	에		안	부	를		날	려	보	낼

수	밖	에	없	는	존	재	지	만	,	언	젠	가	다	시		
만	나	기	를	고	대	하	고	있	어	요	.	건	강	하	시	고
항	상	행	복	하	시	기	를	.	그	럼	이	만	줄	일	게	
요	.	안	녕	!												